

문헌과 배경

여기 복제된 문헌은 마르톤 비알렉(1889-1966)이 여러 언어로 기술한 것으로 추정되는 “나흐라스”의 날장들 가운데에서 발견되었다. 비알렉은 프랑스어를 사용하는 트란실바니아 태생의 카톨릭 신부이자 동방 연구자이며 탐험가로서 양차대전 사이에 오토만 터키 제국과 프랑스 통치령 내에서 활동하던 새의 회합과 거의 명백한 연관을 맺고 있었다. 그의 작은 자필문(自筆文)은 회합의 입회자들에게는 익숙한 종류의 “지속적 집중을 위한 의식”의 지침을 담고 있다. 이 지침서는 일련의 정신적 “자세”를 수행하는데 그 목적을 두고 있으며, 이에 따라 수행자는 주어진 예술 작품 앞에서 의식적 현전(現前)의 수행을 지도받는다. 또한, 수행의 효과들과 영향들도 함께 기술되어 있다. 이 짧은 문헌은 20세기 초 새의 회합의 수행방식 중, 파리, 터키, 그리고 동부 지중해 연안의 수행자 일원 사이에서 사용되곤 했던 뚜렷한 불교적 갈래에 주목을 가져올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더 흥미로운 사실은, 더 이른 시기의 자료들과의 연관 가능성이다. 비알렉이 아우렐 스타인의 제삼탐험단(1913-1916)에 포함되었을 당시에 그가 중국령 투르키스탄에서 발견했다고 주장한 세 권의 고도로 제설혼합적(諸說混合的)인 필사본(筆寫本) 두루마리에 대한 그의 세련된 번역 및 요약에 편으로 고정된 인쇄용지 조각에 “트로킬루스의 수행”이 발견되었다. 전체적으로 중앙 아시아 문헌들이 거의 독해하기 불가능하게 뒤섞인 가운데, 적어도 비알렉이 교정한 바에 따르면 “루우렉 두루마리”는 인간이 창조한 물질적 사물과의 심신양면적(心身兩面的)이고 윤회론적(輪廻論的) 결합을 획득하기 위한 주목할 만하며 긴급을 요하는 기술들을 정리하고 있다. 심각한 위험부담과 견딜 수 없는 황홀경(恍惚境)의 요소 양자를 담고 있는 이 의식의 과정은 사물에 대한 긴밀한 명상적 자각에서 시작하여, 이어지는 정신적 이행기(履行期)와 탈아(說我)에 가까운 단계를 거쳐, 이상적일 경우 일시적인 변형(變形)의 단계에 도달하게 된다. 이 내용을 다른 말로 옮기는 것은 불가능하지만, 문헌 전문의 간행계획이 진행 중임을 알린다. 그 때까지는, 이처럼 명백한 노고를 요구하는 대면(對面)의 한 단계를 수행자가 예비할 수 있게끔 돕도록 고안된 이 비알렉의 수행서가 적절한 이들의 관심을 끌고 활용될 수 있기를 학수고대(鶴首苦待)한다. 뒷면에 지침과 함께 본 문헌이 이어진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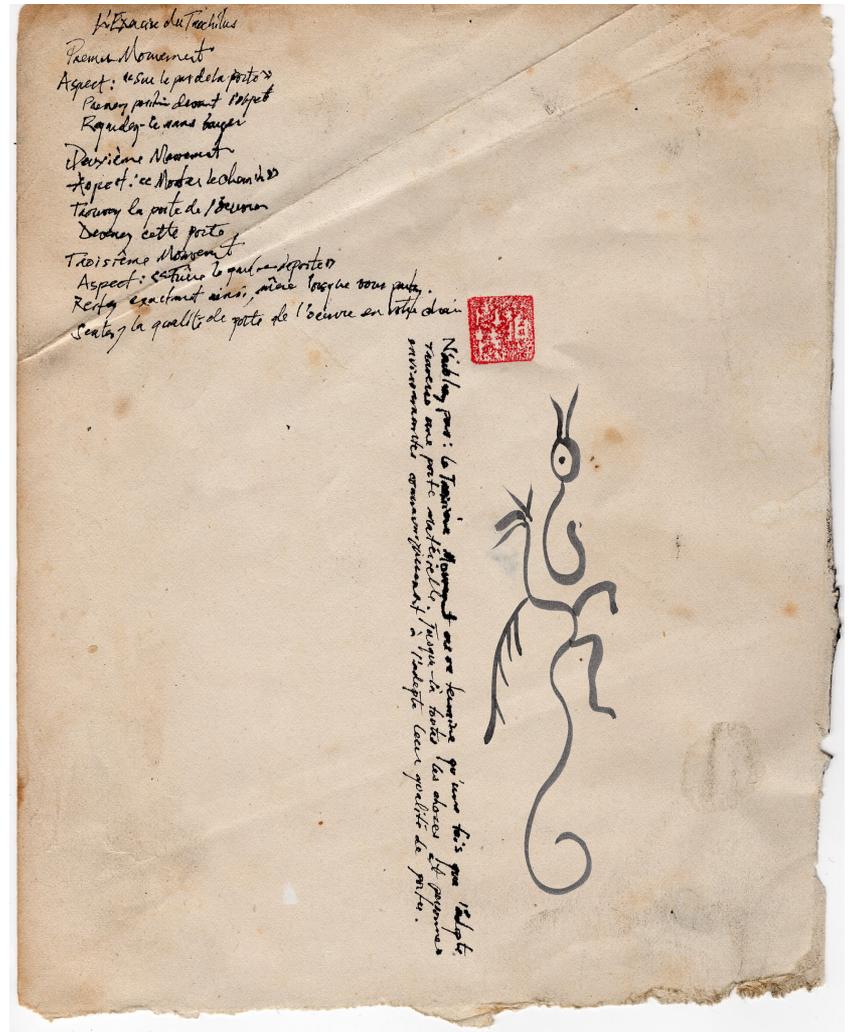


도표: 마르톤 비알렉의 “트로킬루스의 수행”의 복제판본 (더블유 문헌열람고—회문 32. 2; 피터 레에그 촬영)